

제4장

공식 통계 분야의 국제협력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김인식

제1절 서 문

2000년 189개 정상들이 합의한 천년 선언(The Millennium Declaration)은 국제사회의 발전 목표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해주었다. 모든 국가는 발전에 관한 감시와 보고를 해야 하는 분야가 선정되고 그 분야마다 목표를 정하여 실천하도록 합의하였다. 특히 경제 사회 발전에 관한 모니터링 및 빈곤 감축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서와 동향은 국제 통계 공동체에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도전일 것이다.

국제 통계 공동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표가 요구되는 현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국제 통계 공동체의 역할을 감안할 때 각국이 작성하고 있는 공식 통계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다. 공식 통계는 국가 수준에서는 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이나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새천년 목표(MDGs) 달성을 위한 실천 과정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지표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식 통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경제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특성에 맞는 국가통계제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통계 작성 기준 및 분류 등이 불일치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력 등에 비례하여 국가 통계 역량과 수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및 사회 발전 속도가 느리고 낙후되어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 저개발국은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국가통계



제도와 통계 역량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국제 통계 사회에서 이슈로 부각되는 글로벌 통계 지표인 세계 금융 지표,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 지표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의 통계 인프라의 격차는 국제적인 비교와 통계 신뢰성 문제를 야기시켜 향후 세계 금융 위기 등 거시 경제적 정책들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동일한 지표 및 동일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런 격차들을 분석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벤치마크로서 격차 감소 측면에서 “최선의 성과 요인”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¹⁾ 이러한 국제 통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원리를 적용하여 필요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글로벌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 통계국, Eurostat, OECD 통계국 등 국제적인 통계 제도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에서도 통계 역량이 뒤떨어진 저개발 국가에 통계 기법 및 연수와 같은 기술 협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기금 등을 설립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세계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식 통계 분야의 국제 통계 협력 프로젝트를 글로벌 수준, 지역 수준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국제 통계 협력 활동 현황 및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술하고자 했다.

제2절 글로벌 국제 통계 협력 프로젝트

1. 저개발 국가 통계역량강화(SCB) 프로젝트

가. 마라케시 통계발전 실천계획(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

마라케시 통계발전 실천계획(MAPS)은 2015년까지 달성기로 한 8개 분야²⁾ 새천년 목표(MDGs)를 감시하기 위한 지표를 개선하고자 수립된 저개발 국가의 통계역량(Statistical Capacity)강화 프로젝트로서 2004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합의된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다. 마라케시액션플랜(MAPS)의 목적은 품질 높은 통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제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적 지원은 월드 뱅크의 발전 기금

1) 피에트로 게나리(Pietro Gennari), 아시아/태평양 통계 포럼(APEX2),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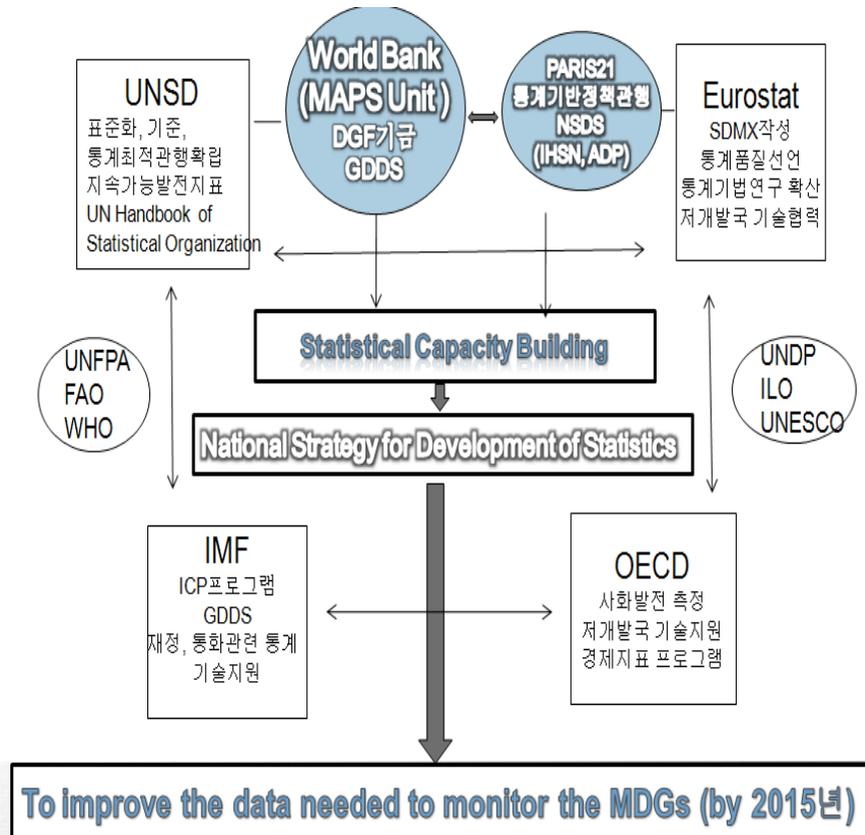
2) ①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③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교양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산모 건강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⑦ 지속 가능한 환경보장 ⑧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DGF)이 활용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월드뱅크, PARIS21, IMF 및 지역별 개발은행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월드뱅크는 마라케시 통계발전 실천계획(MAPS) 사무국을 조직 내부에 설치하여 프로젝트 수행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마라케시 통계발전 실천계획(MAPS)은 저개발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 현상을 모니터링 하거나 저개발 국가가 스스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수집, 작성 및 보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6가지³⁾ 중장기 실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3차 발전 결과 관리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Third International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에서 재정 지원 국제기구와 참여국들에 의해서 마라케시 통계발전 실천계획(MAPS)이 재확인 되었다.

나. 21세기 통계 발전 연대(PARIS21) 설치

PARIS21(The 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은 1999년 11월 유엔개발회의(UN Conference on Development)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엔경제사회심의회의 요청 사항인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및 감시(evidence-based policy making and monitoring)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월드뱅크, OECD, Eurostat, IMF 및 UN의 컨소시엄 체제로 1999년에 설립되었다. 구체적인 임무로는 MDGs 달성 및 빈곤 경감을 위하여 정부의 효율성 향상 및 거버넌스 개선에 필수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및 이행,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PARIS21은 저개발 국가들이 자국의 통계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NSDS)을 제대로 기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SCB 기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PARIS21 사무국은 저개발 국가들이 이러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데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현재 PARIS21 사무국이 수행하는 저개발국을 위한 위성 프로그램으로는 국제 가구조사 네트워크(the International Household Survey Network (IHSN) 및 속독자료프로그램(the Accelerated Data Programme) 등이 있다.

3) ① 2006년까지 모든 저개발 국가의 통계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준비, ② 2010년 센서스 라운드 준비 및 기술 지원 ③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④ 국제가구조사네트워크(IHSN) 수립, ⑤ 새천년목표(MDGs) 모니터링에 필요한 우선 개선 과제 수행 ⑥ 국제통계시스템(international statistical system)개선을 위한 책임 확대



[그림 4-1] MAPS관련 국제기구 파트너십

다. 공식 통계 역할 강화를 위한 선진국 간 협력 프로젝트

유엔,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 통계 부서에서는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식 통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IMF(국제통화기금)는 현 세계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 경제 지표 보완, 통계의 현실적 합성 제고, 신속한 자료 갱신, SDDS(특별자료제공기준)를 통한 투명성 제고, 국가별 금융 부문 지표 연계 방안(IMF Intranet), 의사소통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은 적기 자료 제공 및 가구의 소비지출, 주택시장, 빈곤 등의 사회통계 생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UNSD(유엔 통계국)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 2008)의 보완을 평가하는 개념적 준거 틀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 자료 수집과 공표 체계 개선 프로젝트

가. MDGs 모니터링 지표 개선-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세계은행은 MDG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MDGs 모니터링의 지표 개선을 위한 국제비교 프로그램(ICP)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MDG 추진 사무국을 내부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통계기관들도 저개발국의 MDG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는데 영국 통계청(ONS)은 2007~8년 동안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ICP(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를 통한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제 원조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일본도 아시아 지역의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를 위하여 기술 지원 및 교부금 부담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 지역 ICP(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UNSD와 UNDP 등 국제기구들은 유엔 새천년 지표 전문가 그룹(UN MDG Indicators Expert Group)을 설치하여 새천년 목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정보와 지표 생산과 연관된 핵심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그룹의 주요 임무는 새천년 선언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의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5년마다 작성하는 글로벌 새천년 모니터링 보고서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수많은 측정 이슈에 관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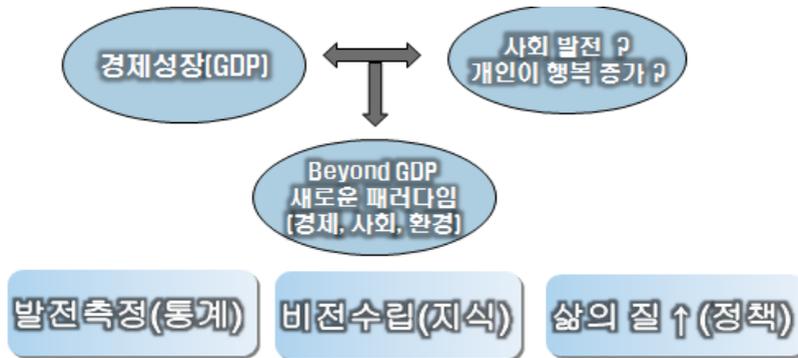
나. IMF의 일반통계 공표기준(GDDS) 구축

여러 지역 및 국제기구들이 회원국 및 저개발 국가 대상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대상국에 유용한 도구(tools)를 제공해오고 있다. IMF도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21개 영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에 대규모 GDDS(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 지원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2007~2008년: 123개 회원국에서 150종류의 390개 기술 프로젝트가 수행 됨).

IMF의 GDDS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국이 합의된 프레임 워크를 적용하여 그들의 거시경제, 재정 및 사회적 요소 등에 관한 자료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현재 상당수의 국가들이 GDDS기준에 따라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6년 9월 IMF 특별통계공표기준(SDDS)에 가입함으로써 IMF의 요구에 따라 각종 통계의 메타 자료(Metadata), 사전공표일정(Advance Release Calendar), 실제 수치(National Summary Data Pages)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 OECD 사회 발전 측정 글로벌 프로젝트

OECD 통계국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사회 발전 측정(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사회 발전 측정 패러다임으로 GDP개념을 뛰어넘어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자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처음으로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세계 포럼을 이탈리아에서 개최하였으며 2007년에는 터키에서 사회 발전 측정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한국에서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3차 OECD 세계 포럼이 개최되었다.



[그림 4-2] OECD 세계 포럼의 사회 발전 측정 패러다임

3. 저개발 국가 통계 제도 발전 기금 조성

가. 통계역량강화기금(TFSCB) 설립

통계역량강화기금(TFSCB)은 21세기통계발전연대(PARIS21)의 저개발 국가 통계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드뱅크의 발전 자료 그룹(Development Data Group)이 주관하여 월드뱅크 발전교부 금융지원(Development Grant Facilities) 제도를 활용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TFSCB는 저개발 국가의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드뱅크의 행정적 지원 및 다자간 원조 신탁 기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빈곤 감축과 사회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 처리, 분석, 저장 및 공표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행에 활용된다. 통계역량강화기금(TFSCB)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부로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저개발 국가가 지속적인 통계역량강화를 통하여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통계역량강화기금(TFSCB)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2~3년 단기 프로젝트 등에 약 400,000달러의 소규모 신속한 원조 기금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부 저개발 국가들은 시급한 국가 통계 제도상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개발할 수 있었다. 기금의 주요 수혜국은 현재 PRSP⁴⁾(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과정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향후 PRSP 과정에 속할 예정인 국가들로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지역의 저개발 국가들이다. 2008년 기준 주요 국제기구의 (TFSCB) 기금 집행 규모는 PARIS21(\$4.0m), UNSD(\$1.0m), UN-Habitat (\$0.2m), UNECE(\$0.25m) 및 ILO(\$0.1m) 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월드뱅크, EC 등 주요 국제기구 외에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매년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나. 통계 발전 기금 대역 프로그램(STATCAP)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월드뱅크는 발전교부 금융지원(Development Grant Facilities)제도를 활용하여 STATCAP으로 명명된 새로운 통계발전 대역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STATCAP은 저개발 국가들의 통계역량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이 대역프로그램은 재정적인 운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적인 회의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기술 지원 및 자문에 의한 자원 최적 활용 비용, 투자를 위한 새로운 수단에 필요한 비용들도 포함 되어 있다. 2008년 기준 STATCAP 수혜 국가로는 대부분 PRSP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Ukraine (\$32m), Burkina Faso (\$10m), Nigeria (\$18m), Tajikistan (\$1m), and Kenya (\$20.5m) 등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디아, 키르키즈 공화국, 아르헨티나 및 우간다 등이 있다.

다. 2010년 라운드 센서스 지원 월드 프로그램(World Programme)

유엔인구기금(UNFPA)은 저개발 국가의 2010년 라운드 센서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운영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2010년 라운드 센서스 기금 지원 주요 대상 국가로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수단, 소말리아 등 분쟁 지역과 빈곤 국가들이다. 또한 유엔인구

4) 1999년 9월 세계은행과 IMF 연차 총회에서 국가 주도의 빈곤감축전략 수립을 토대로 한 채무구제와 양허차관 공여 방안이 합의된 CDF(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의 원칙에 입각한 각국의 빈곤감축 전략보고서(PRSPs)

기금(UNFPA)은 지역별 주요국과 MOU를 체결하거나 양자간 협력 관계 등을 통하여 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술 지원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아랍, 아시아 태평양, 미주 및 동유럽 지역에서는 인구센서스 수행에 필요한 조사표 설계, 자료 수집 및 처리를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현안, GPS, 자료 입력 방식, 조사원 교육, 자료 처리 분석 및 공표 등 세부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는 인구센서스 실시를 위한 기술 지원 이외에도 필요한 수행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아프리카 차드와 말라위의 인구센서스 준비 및 수행 자금으로 각각 1,800만 불과 900만 불을 제공하였다. 최근 유엔과 유럽위원회(EC)는 1,500만 유로를 조성하여 1975년 센서스 이후 중단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구센서스의 성공적인 실시에 필요한 인력 동원, 기술 자문 및 연수 등을 위하여 집행하고 있다.



제3절 국제기구별 글로벌 통계 협력 활동 현황

1. EU(Eurostat)

가. 저개발국 대상 통계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및 협력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의 저개발국 기술 지원은 개발도상국가나 경제전환기의 발칸과 중동 지역, 확대된 EU의 동쪽 국경에 있는 최근의 번영하는 동유럽 파트너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 중동 지역 협력 파트너 10개국(Algeria, Egypt, Israel, Jordan, Lebanon, Morocco,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Syria, Tunisia and Turkey)과는 지역통계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1996년부터 통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MEDA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중동 국가 통계개발 협력프로그램(MEDSTAT Programme)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련국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996년 착수한 통계협력 프로그램의 목적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통계 체도를 통합하고 국가간 비교성 향상에 있다. 특히 주된 통계협력 관심 분야로는 무역, 운송, 국제이동, 관광, 환경 국민계정, 사회통계, 에너지 통계 및 농업통계 등에 대한 자료 공표, 통합 그리고 일관성 확보에 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수행된 1단계 협력프로그램에 2,000만 유로가 집행되었다. 2단계 협력프로그램은 2006년도 시작되었으며 2009년 9월까지 3년간 3,000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2) 유럽위원회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통계협력 기본 목적은 아세안의 주요 정책결정에 요구되는 정확하고 적정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아세안의 통합을 달성토록 지원 하는 것이다. 통계협력 프로젝트 추진 목적은 통계 비교성 향상,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통계 작성 및 조정 능력 강화, 국제무역통계, FDI통계 및 ICT 통계 등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법 전수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아세안 회원국들의 종합적인 통계 작성 및 분석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위원회(EC)는 각각의 아세안 회원국과 통계협력이 포함된 파트너십 및 협력이행각서(PCA)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현재 Eurostat는 아세안과 통계 작성 능력 개발 프로그램(2009~2012)을 제공하고 있다.

3) 중앙아시아(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에 대한 Eurostat의 기술 지원은 EC의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TACIS Programme) 아래 1994/95년 이후 시작되었다.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2년 과정으로 1997년 Statistics 3와 1999년 Statistics 3가 수행되었고 2002년 Statistics 8, 2003년 Statistics 9, 2004년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Statistics 10 Uzbekistan 및 2005 Statistics 11 등이 1년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국가통계제도 개선에 집중되었다. 현재 2009-2010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4) 유럽위원회(EC)의 캐리비언공동체(CARICOM) 통계 기술 지원 전략은 양자간 협력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7년 4월 체결된 새로운 원조 협약에는 통계 부문 기술 지원을 위하여 330만 유로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 원조 금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Eurostat는 CARICOM 사무국과 협조하기로 동의하였다.

5) Eurostat는 아프리카, 캐리비언 및 태평양 지역(ACP)에 대한 협력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지역 통계개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및 기술을 제공해 주고 있다.

6) 러시아와의 통계협력은 러시아 주재 EU대표부를 통하여 수행된다. Eurostat는 러시아 통계청(Rosstat)은 물론 독립국가연합(CIS-stat) 통계청과도 통계협력을 동시에 수행한다. 통계협력은 주로 통계자료 교환, 통계방법론에 관한 공동 공표(co-publication), 협력 및 통계 조정 활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Eurostat와 러시아 통계청의 통계자료 공동 공표 자료인 "유럽 연합 러시아 통계 비교"(The European Union and Russia - Statistical Comparison) 자료는 영어와 더불어 러시아어로 발간된다.

7) Eurostat와 인도 통계청과의 양자간 통계기술협력 관계는 초기 단계에 있다. 2008년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EU/Indian Joint Action Plan에는 통계 분야의 방법론, 통계 조정, 경제사회지표 개발 등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기술 협력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8) Eurostat와 중국 국가통계국과의 기술 협력 관계는 양자간 파트너십 및 협력에 관한 기본 협약(the framework agreement on partnership and cooperation)에 의거하여 통계 작성 능력 배양과 통계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상호간에 협력하는 것이다.

9) 유럽 연합(EU)이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는 공식 통계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

크라이나는 모든 공식 통계 분야에서 유럽 연합 수준의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식 통계 분야의 기술 지원은 2012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나. 기타 선진국과의 기술 교류 협력 활동

1) 기타 지역 선진국(North America, Australia, Japan, Korea 등)과 Eurostat의 통계 기술 유럽위원회(EC)와 국가간 기술 협력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주로 각국 주재 EC대표부와 국제 협력(External Relations DGRelex) 부서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2) Eurostat와 스위스 간의 양자간 통계협력 협정이 2007년 1월 비준되어 효력을 발생시켰다. 일반적으로 EFTA 국가들(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은 EEA(European Economic Area)협정의 중심에 해당된다. EFTA와 Eurostat(유럽 연합)은 확대된 유럽 경제 구역에 근접하는 국가들이 통계 방법과 국제적 용어 표준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통계 분야 EFTA 기술 협력의 전반적 목표는 다수의 통계 관련 기술적 협력프로그램에서 EFTA 회원국과 Eurostat간의 밀접한 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EFTA 국가와 Eurostat간의 기술 협력은 이해 각서에 기초한다.

2. UN(Statistics Division)

1) 유엔 통계국(UNSD)은 세계 통계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보급 및 통계기준, 표준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유엔 통계국의 주요 기능은 통계정보 수집, 처리, 보급, 통계 방법 표준화, 분류 및 정의 기술 협력프로그램 수행 등이다. 특히 2010년 라운드 센서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월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2)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여러 국가 및 국제적인 자료 원천을 통하여 수집된 국제 교역, 국민 계정, 에너지, 산업, 환경, 수송(교통), 인구 및 사회통계 등의 자료를 국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이 사용하는 통계 정의, 분류, 방법 등의 국제 표준화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통계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요청하는 회원국에 훈련 제공 및 유엔통계위원회와 통계활동협력위원회(CCSA)가 위임한 국제통계 프로그램 수행 활동을 주관한다.

3) 2006년에는 회원국들의 국가통계제도 발전을 위하여 표준 관행(good practice)에 관한 연구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4) 지역별 회원국 통계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엔지역위원회(UN Regional Commissions), 관련 지역 국제기구 및 다른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통계 연수 프로그램과 새로운 통계 기법 및 방법론에 관한 워크숍 및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다.



5) 유엔통계위원회의 실무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무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지원 및 지속가능 발전 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환경통계 및 통합 환경/경제 계정 개발 보급 등 성장과 발전 수단으로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현대적 조사기법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6) 각국 통계기관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비공식 모임인 시티그룹을 통한 공식 통계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각국 대표의 참가 및 자금지원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룹별로 정한 독자적인 원칙을 통한 자율적 모임으로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초 결성된 Voorburg 그룹 활동에서 보여주었던 국가통계기관의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활용하는 것은 국제표준 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방법임을 국제사회가 알게 되었다. 그 후, 2006년 현재까지 13개의 시티그룹이 결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많은 국가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은 양립하기 힘든 문제일 수 있으나 유엔통계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범주 내에서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그 목적 달성을 꾀하고 있다.

7) 유엔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는 24개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회원국 선출은 세계를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4~7개 국가를 선출하고 있다. 유엔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 발전과 국가 비교성 증진, 특별 기구들과 통계 협력, 사무국의 중앙 집중적 통계 서비스 개발 협력, 자료 수집 분석 및 보급 관련 문의 사항 처리, 통계 자료 및 방법론 개선 등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유엔통계위원회는 매년 4일간 개최되며 회기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 안전별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위원회 회원국 임기는 4년이며 아프리카 5개국, 아시아 4개국, 동유럽 4개국, 남아메리카 4개국, 서유럽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 유엔통계위원회 회원국 현황

아프리카	(5)	카보베르데, 콩고, 케냐, 모리타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아시아	(4)	한국, 중국, 이란, 일본
· 東歐	(4)	크로아티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 라틴 및 캐리비안제국	(4)	콜롬비아, 쿠바, 자메이카, 멕시코
· 西歐 기타	(7)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영국, 미국

3. World Bank(Development Data Group)

1)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의 저개발 국가의 통계 작성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들과 공조하여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2) 세계은행의 주요 통계 지표로는 세계발전지표, 외채 통계, Global Development Finance 자료 공표 등이다. 특히 세계은행은 MDGs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중추기관으로서 최근 국제비교프로그램(ICP) 추진 사무국을 내부에 설치하고 있다.

3) 월드뱅크의 개발 교부 지원(Development Grant Facility)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주요 통계협력기구는 Health Metrics Network(HMN), PARIS21, International Household Survey Network(IHSN), Accelerated Data Programmeme(ADP), 2010 World Programmeme of Population Censuses(WPPC) 및 UNESCO Institute of Statistics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 영어 사용 국가들에 대한 GDDS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IMF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4) 국가 수준에서의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 지원은 고객 국가들에 대한 월드뱅크의 전략적 지원 방식을 통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전략적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신탁기금(trust fund)이다. 이는 저개발 국가들이 그들의 통계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부금을 제공하는 일종의 다목적 기부금이다. 이는 특히 통계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TATCAP lending Programmeme이 있다.

4. IMF(Statistics Department, STA)

1) IMF의 통계부서에서는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 등에 통계 기술 지원 및 통계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다. IMF의 주요 활동 통계 분야로는 국제통화기금의 사용 및 감시와 관련이 있는 국민계정, 물가통계, 정부재정통계, 통화와 재정,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국제투자지위 및 외채 등에 대한 회원국의 통계 작성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 방법론, DB관리, 공표, 국제 조정 및 통계훈련 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2) IMF 통계 부서에서 제공하는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은 주로 IMF 소속 직원과 외부에서 채용된 전문가가 수행하는 단기 단일 과제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장기 채용된 자문관에 의해 보완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21개 영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대규모 GDDS(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 지원 프로젝트 관리하고 있다(2007~2008년: 123개 회원국에서 150종류의 390개 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함).



3) IMF는 산하 기관에 설치한 지역연수소(regional training institutes, Singapore, Tunisia, China, UnitedArab Emirates, India, Brazil and Austria)에서는 연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계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통계 분야 훈련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의 거시 경제 통계에 집중되어 있다.

5. OECD(Statistics Directorate)

1) OECD 통계국은 비회원국들도 국제수준의 통계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통계훈련 및 기술 지원 등 여러 종류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사회발전측정(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 2008년 11월에는 저개발국의 통계 목적 행정자료(business registers) 이용에 관한 특별 회의가 시티그룹(Wiesbaden Group) 회의 기간 중에 추진되었다. 이 회의에서 OECD 통계국이 추진하는 주요 경제지표 프로그램(the Main Economic Indicator Programme)은 6개 비회원국(Brazil, China, India, Indonesia, Russian Federation and South Africa)을 위한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3) 2004년 OECD통계자문그룹(Statistical Advisory Group)이 통계위원회로 변경되어 그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다. OECD 회원국 통계기관장들이 모이는 회의로써 매년 OECD 본부가 있는 파리와 국제연합 유럽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으며 UNECE 통계기관장 회의와 동시에 개최된다. OECD회원국의 통계업무 프로그램 및 국제기구의 통계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통계기관장들이 관심이 있는 특별주제 등에 관한 토의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한국은 2006년, 2008년 연이어 2년 임기의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에 선임되었다. 통계위원회는 의장국(호주), 부의장국(프랑스, 미국), 의장단 회원국(한국, 미국, 핀란드, 터키, 네덜란드)으로 구성되어 있다.

6. FAO(Statistics Division)

1) FAO(통계처)는 자체 Field Programme을 통하여 필요한 통계를 수집하기 위해 회원국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식량 안보와 조기 경보 정보 시스템과 관련하여 회원국 농업통계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농업 통계자료처리, 농업통계 DB 구축 및 통계역량 개발을 위한 훈련 등이다. 또한 지역 단위의 농업 분야 통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 및 하부 지역의 통계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2) 회원국의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은 FAO의 정규 기술 협력프로그램과 더불어 FAO/World Bank의 빈곤 감축을 위한 농업 통계 개선 이니셔티브 자금이 사용된다. 현재 2010년 농업센서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3) 또한 자체적으로 CountrySTAT System 구축하여 농업과 식량에 관한 국가통계의 조사, 내검, 자료 처리, 작성, 분석, 공표 등에 관한 세부 방법론을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7. 기타 국제기구

가. ILO(Bureau of Labour Statistics)

ILO 통계국에서는 회원국의 경제, 사회 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행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국가 노동 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 표준을 정비하고 보완 하고자 기술적 지침서(technical manual)를 개발 하여 회원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 UNESCO(Institute for Statistics)

유네스코 통계원(UIS)은 교육, 과학, 문화 및 통신 분야의 글로벌 통계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UIS에서 구축하고 있는 지역별(Latin America, Asia and sub-Saharan Africa) 통계전문가 네트워크 활동은 국가 수준과 국제 수준의 자료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 WHO(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회원국의 국가보건정보시스템 강화를 원조해주기 위하여 WHO는 개념, 가이드라인, 분류에 관한 국제질병통계분류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워크숍, 세미나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워킹그룹 활동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라. WTO(Department of Statistics)

WTO 통계국의 주요 협력 활동으로는 국제상품무역통계와 서비스무역통계에 관한 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TF팀을 각각 구성하여 자료 수집 활동에서의 자료 범위, 품질, 조정 등의 업무 개선 방안을 찾아서 지침서를 작성 제공하는 것이다.



마. 기타 유엔 산하 국제기구

1)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관련국가의 무역통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다른 지역 기구와 협력하여 다양한 기술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

2) 유엔개발계획 (UNDP)은 국가사무소를 통하여 종합적 통계역량강화(general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를 위한 훈련 및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기금 지원을 하고 있다.

3) 유엔인구기금(UNFPA)은 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와 발전을 위한 자료(Data for Development) 두 종류의 통계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10년 라운드 센서스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Data for Development 프로젝트는 인구, 건강, 성별 자료 등과 관련된 Migs 추진 평가 및 감시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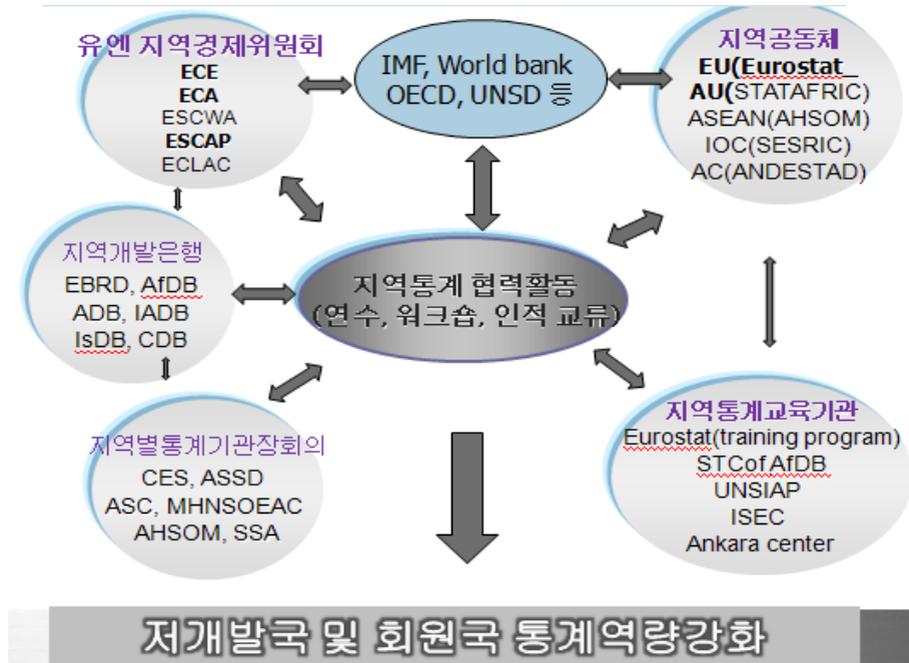
4) 유엔아동기금(UNICEF)은 통계 역량 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와 관련하여, 통계 활동과 감시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가)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나) Delving: MDGs 수행을 위한 자료처리, 보관 소프트웨어

제4절 지역별 통계 협력 활동 현황

최근에는 세계 경제의 통합을 추구하는 블록화 현상에 의해 통계 분야의 지역별 블록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국제기구 산하에 통계기구가 다수 설치되었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유럽에 EU(Eurostat)가 설치되어 있고, 아시아에는 ASEAN(Statistic Unit), 아프리카에는 AU(STATAFRIC), 이슬람지역은 이슬람회의(OIC, Statistical Working Group), 남미에는 안데스 공동체(The Andean Community, ANDESTAD) 등이 있다. 또한 지역별로 통계 현안을 토의하고 국가통계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엔 및 유엔 산하 5개 지역별 경제사회위원회 통계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통계기관장 회의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역별 통계기관장 회의(NAFTA가맹국 통계국장 회의, 영연방통계국장 회의, 아세안통계관장 회의, OECD 통계기관장 회의 등)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의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아시아 개발은행(ADB), 이슬람 개발은행(IsDB), 미주 개발은행(IDB) 등 지역별 개발은행을 중심으로 조직 내에 통계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회원국 통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4-3] 지역별 통계 협력 체계

1. 유럽

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Statistics Division)

1) UNECE는 지속적으로 중앙아시아, 동유럽, 남동유럽, 남부 코카서스 등 저개발국에 대한 통계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기술 지원 영역으로는 인구주택총조사, 국제이동 통계, 성별분리 통계 및 경제동향 통계, 물가 통계, 지속가능경제개발 및 국민계정, 통계정보제공, 원시자료 활용 국가통계제도의 법률적 정비 등이다. 또한 UNECE(통계과)에서는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 및 전 유럽을 포함하는 56개 회원국의 통계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유럽통계기관장 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가 통계청 및 국제기구 통계 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그룹의 협조를 받아 지역 내 기술 협력을 촉진시키고자 광범위한 통계의 자료수집, 작성, 자료처리, 공표 등 광범위한 통계 분야에서 권고사항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3) 유럽통계기관장 회의(CES plenary session)는 제네바와 파리를 번갈아 가며 매년 6

월에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주최하는 회의이다. 유럽연합(EU)과 OECD 회원국 통계기관장들이 모이는 회의로써 각국의 통계 경험을 소개하고 관심 분야를 토의하는 기관장회의이다. 매년 OECD통계위원회와 동시에 개최되며 회의의 주요 목적은 UNECE 지역의 통계 표준을 토의하고 채택하며 지역 통계 현안에 관한 국제 협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통계 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지역 내 통계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동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긴밀하게 지역 통계 활동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내 비교성과 국가통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표 4-2〉 최근 CES plenary session 개최 현황

일시	회의 제목	장소
8-10 June 2009	57th plenary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Geneva,
10-12 June 2008	56th plenary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Paris,
11-13 June 2007	CES plenary session - Salle XXVI	Geneva,
13-15 June 2006	CES plenary session	Paris,

4) 유러피언 통계전문가회의집행위원회(CES Bureau meeting)는 UNECE 산하 통계소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유엔통계위원회 권고 사항에 부합하여 국제 비교성 증진과 개념과 정의의 표준화를 장려하는 등 지역의 국가통계개선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유엔회원국 국가통계기관 대표, OECD, Eurostat, IMF 및 World Bank 대표들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회의는 1년에 2차례(2월, 10월) 워싱턴과 유럽을 오가면서 개최된다.

〈표 4-3〉 최근 CES 집행위원회 개최 현황

일시	회의 제목	장소
2-3 February	2009 CES Bureau meeting	Geneva,
20-21 October	2008 CES Bureau meeting	Washington D.C
12-13 February	2008 CES Bureau meeting	Geneva
18-19 October	2007 CES Bureau meeting	Helsinki
12-13 February	2007 CES Bureau meeting	Geneva

5) UNECE는 회원국 및 유럽 내 국제 통계 활동을 조정하여 통계제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년에 유럽의 3대 국제 통계기구(Eurostat, UNECE, OECD)의 통계협력 활동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DISA(Database on International Statistical Activities)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나. 유럽연합 통계청(EU, Eurostat)

Eurostat는 1952년 파리조약에 따라 유럽 지역 석탄 및 철강의 생산/판매의 공동 관리를 위하여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가 설립되어 1954년에 정식으로 “통계과”가 만들어졌으며 1959년 유럽위원회 통계처(SOE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69년 ECSC, ECC, Euratom이 통합되어 유럽위원회(EC, 이후 EU로 변경)가 출범하였고, 1972년 SOEC는 Eurostat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유럽 및 세계에 고품질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유럽, 국가, 지역 수준 의사 결정을 위한 유용한 통계를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설립된 Eurostat은 EU 6개 구성 조직(Parliament, Council, European Commission, Court of Justice, Court of Auditors) 가운데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에 속하며 EC 24개 부처 중 Economic & Monetary Affairs 산하 기관이다.

Eurostat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의 통계 작성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EU의 중앙통계 기구라 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통하여 국제통계 분야에서 최선의 관행을 확립하고 있다. 특히 통계 작성 및 처리에 관한 방법론, 비교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urostat는 유럽통계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훈련과 연수 등을 통한 방법으로 다른 지역 및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ERETES 및 Eurotraced와 같은 국민계정 및 무역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여 회원국 및 저개발국 등에 제공하여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폭넓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Eurostat에 설치된 국가 통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advisory group)의 주목적은 sub-Saharan Africa 국가들의 통계작성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이다.

Eurostat는 UN, OECD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통계협력 관계를 이루며 중부/동부 유럽국, 독립국가연합 등 비회원국 통계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국 통계기관과 공조하고 있다. Eurostat과 OECD의 협력 업무는 실무그룹 사무국간(Inter-working groups) 비공식 합의에 기초한다. 이해 각서의 내용은 통계 데이터의 교류를 포함한다. 유엔 통계국(UNSD)과의 통계교류는 UN의 몇 개의 특화된 부서와 함께 공동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유엔교육과학문화단체(UNESCO),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Eurostat와 유엔 통계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프로그램은 통합 경제 통계에 관한 것이다. 특히 국민계정 방법론, SNA93, Eurostat 국민·금융계정 개선 등을 위한 SDMX(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교류와 교환에 관한 공동기준) 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rostat는 통계 품질관련 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엔 통계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계 활동 공동 조직 구성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의 협력은 세계은행이 통계의 기술적 지원 측면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주로 유럽위원회의 DG개발을 통해 새천년 목표(MDGs) 지표개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PARIS21과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 국가, 지역과 국제 협회, 양자 기부자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urostat는 유럽 및 세계에 고품질 통계를 보급한다는 Eurostat 사명과 EU 및 회원국을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의 선구자가 된다는 비전을 위해 사용자 중심(EU 안팎 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 지속적인 개선(세계화와 기술 진보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여 작업 방법 개선 등 노력), 고품질 통계(과학적 방법으로 고품질 통계 산출), 국제 협력(EU 내외 협력을 통해 단계적인 시스템 개선), 자료 공급자 만족(자료 공급자는 통계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원이므로 상호 보상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 리더십(체계적 통계 품질 관리를 위한 장기 전략 마련), 효율적인 통계처리(최소 자원으로 최적의 통계시스템을 구성하고 오류 최소화 노력) 및 인력 개발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Eurostat는 유럽 통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통계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방법, 기술, 최상의 사례에 관한 지속적인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FTA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유럽 통계교육 프로그램(ESTP)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EFTA 사무국은 Eurostat의 승인을 받아 적어도 두 개의 코스를 해마다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코스들은 EFTA의 국가통계기구가 협력하여 주최하며 EFTA 국가는 물론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계전문가들 모두에게 제공된다. 또한 Eurostat는 필요한 경우 EFTA 통계전문가가 ESTA 코스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 독립국가연합 통계청(CISSTAT)

CISSTAT는 회원국의 통계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를 위하여 역내 최적의 통계작성 관행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 표준 분류 및 조정 등에 관한 공통된 통계 방법론 및 권고 사항을 작성하여 공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회원국 통계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며, 역내 통계 전문가를 위한 통계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국제워크숍과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 통계청장 심의회(Council of the Heads of Statisticians)는 CIS참석자와 CIS 통계위원회의 의장 등 CIS회원국 통계청장들로 구성된다. 현재 구성원은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계청장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일 년에 두 차례에 한하여 모임을 주관한다. CIS 통계위원회가 설립된 1992년 2월 이후로 약 38회의 심의회 주관 모임이 개최되었다. 심의회는 회원국간 통계 협력 현안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토론한다. 주요 분야는 CIS 통계위원회 주요 활동 방향 및 개념에 관한 정의, CIS 통계위원회 활동 업무 프로그램과 보고를 포함한다. 1995년부터 통계청장 심의회는 UN권고와 국제 의무에 따라 표준화된 통합프로그램과 방법론적 기초를 사용하는 인구센서스를 정기적으로 준비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제도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심의회는 인구센서스 질문지, 인구센서스의 조사 지침, 국적과 직업의 모델 어휘집 등의 최소 단위 업무 등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을 작성하여 승인함으로써 회원국간 정보 공유를 위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센서스 결과, 지도 제작 자료의 결과 처리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심의회는 감독 아래 CIS 국가들의 국가통계서비스 공동 업무와 CIS 통계위원회의 활발한 참여로 통계 방법론을 개선하고 국제기준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회원국의 체계적인 통계 정보 교환과 통계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달성하는 등의 영연방의 체제의 통계조정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 아프리카

가.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African Center for Statistics)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통계센터(African Center for Statistics)는 12명의 통계전문가로 구성된 과 단위로 2006년에 설립되었다. 아프리카 통계센터의 전략적 목적은 아프리카 지역의 현재 통계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회원국에 최적의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의 인구주택총조사 방법 개선 및 가구조사 재설계 등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집행코자 통계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UNECA 통계자문위원회(The Advisory Board on Statistics in Africa)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회원국의 통계제도개선, 통계활동조정, 통계역량강화 및 감시, 국민 계정 통계 개선, 2010년 인구·주택 센서스 활동 지원,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지원, 통계교육센터 지원(STCs), 품질 관리 기법 전수, 자원 동원, 아프리카 통계협회 운영, 아프리카 통계의 날 기념(ASD) 사업 및 The Friends of ECA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나. 아프리카 통계개발 심포지엄(African Symposium on Statistical Development)

아프리카 재정·기획·경제발전부(CoM) 회의에서 아프리카 통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프리카 통계발전 심포지엄은 아프리카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 for Africa(STATCOM-Africa))의 통계개발프로그램으로 매년 주최되는 통계전문가 회의이다. 최근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능력배양재단(ACBF),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UNECA 등의 다수의 지역단체들이 참여하여 아프리카통계조정위원회의 설립을 상의하고 통계역량강화분야(SCB)에서 아프리카 국가와 협회를 지원하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아프리카통계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아프리카 통계개발 심포지엄은 비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제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구역과 지역, 국제기구의 의제를 포함하는 연례



모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가 주도의 이니셔티브의 성공 여부는 국가의 헌신과 아프리카 통계 발전의 다수 옹호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형성과 정책 결정, 새천년 목표(MDGs)를 포함하는 개발 이니셔티브의 평가와 감독 시스템 운영 등에 달려 있다.

다. AFRISTAT

1993년 아비장 조약에 의하여 아프리카에 설립된 국제 통계기구이다. 19개 회원국의 통계청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이를 위한 주요 활동은 기술지원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분야의 통계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이다. 현재 국민계정, 거시경제, 사회통계, 물가통계, 현장조사, 빈곤분석, 농업통계, 정보통신기술, 조직정비, 프로젝트 관리, 기업통계, 비공식 분야, 인구통계 및 무역통계 분야의 국제 수준의 전문가 23명과 다수의 보조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라. 아프리카 연합 AU(Statistics Division)

아프리카 연합 통계국(Statistics Division)은 유럽위원회(EC)의 Eurostat를 모델로 하여 아프리카연합 공동체(AUC) 아래 STATAFRIC를 설립하였다. STATAFRIC의 주요 임무는 통계에 관한 아프리카 헌언(African Charter on Statistics)의 이행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전략적 과제로는 대륙 수준에서 아프리카 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신뢰와 조화가 바탕이 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통계제도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마. 아프리카 개발은행 AfDB(Statistics Department)

아프리카 개발은행 통계국(AfDB, Statistics Department)은 아프리카 통계교육센터(Statistical Training Centers)를 설립하여 2003년 중반부터 가격조사 방법론, GDP 분류, 데이터 품질 관리와 같은 주제에 대한 연수 과정을 실시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및 통계 발전에 협력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의 공식 통계 담당 공무원의 통계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과 유럽위원회(EC)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회원국(Regional Member Countries) 연수 과정에는 전체 약 700명이 넘는 관리자가 참여하였고 약 20개가 넘는 지역, 소구역 단위에서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훈련 세미나는 ICP 조정팀이 AfDB가 지원하는 51개 RMCs의 효과적인 통계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은행의 조달, 분배, 회계 절차 주제를 다루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통계국을 통해 산하 통계교육센터(STC)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통계국은 커리

쿨럼을 향상시키고 아프리카 상황과 즉각적으로 관계가 있는 통계 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바. 동아프리카 통계교육센터(The Eastern Africa Statistical Training Centre)

1965년 탄자니아에 설립된 이후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와 UNDP의 공조 하에 운영되어 오다가 1977년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붕괴로 더욱 많은 아프리카 주변국(보스와니, 에디오피아, 레스토, 말라위,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랜드 잠비아 등)의 공식 통계 담당 공무원이 연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요 훈련 프로그램은 두 종류의 준전문가 과정(통계정규과정, 10개월 학위수여과정, 20개월)을 운영하고 있다.

3. 아랍 및 이슬람 지역

가. 유엔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UNESCWA(Statistics Division)

ESCWA(Statistics Division)은 역내 최적의 통계 작성 관행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 표준 분류 및 조정 등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국제 지도자들이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구 부문, 노동력 조사 및 다른 주요 조사에서 국제 비교성이 높은 사회-경제지표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 통계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역내 통계전문가를 위한 통계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라운드 센서스 실시를 위한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에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나. 아랍 통계기관장 회의(Arab Statistical Conference)

요르단에 있는 아랍 통계 교육 및 연구소(Arab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in Statistics)에서 2008년 처음으로 주최하였으며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랍 통계회의는 회원국의 통계기관장 등 고위급 통계 관료가 참석하여 아랍 지역 주요 통계 현안을 토의하고 통계 발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개최하고 있다. 2009년 제2차 아랍 통계기관장 회의는 2009.11.2~4 리비아에서 개최되었다.

다.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아랍 기금(AFESD, Statistics Intervention)

AFESD(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의 통계분야 협력기금은 주로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제도정비(Institutional Reform), 조직재정비(Reorganization) 그리고 인구센서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라. 이슬람개발은행(ISDB, IDBSTATCAP)

이슬람개발은행의 IDBSTATCAP 프로젝트는 회원국의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Initiative)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학금, 연수, 워크숍, 전문가 교류 및 통계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 이슬람회의(OIC, Statistical Working Group)

이슬람회의(OIC)는 57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기구이다. 이슬람회의는 ISDB(이슬람개발은행)가 주관한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에 관한 전문가그룹 회의의 권고 사항으로 통계업무개선을 위한 작업반(Statistical Working Group)이 기구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산하에 보조 기구로서 이슬람 통계, 경제 및 사회 연구 및 교육센터를 1978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슬람 회원국의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서 통계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슬람 통계, 경제 및 사회 연구 및 교육센터(SESRI)는 Ankara 센터로 이슬람 회원국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56개 회원국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연구 훈련 기관이다. 매년 이슬람 국가 통계학 회의(Islamic Countries Conference on Statistical Science)를 개최하고 있다.

바. 아랍통계교육 및 연구소(Arab Institute for Training & Research in Statistics)

유엔과 UNSD 후원으로 아랍지역 통계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1971년 이라크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요르단 암만에 소재하고 있고 모든 아랍지역의 국가통계기관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연구소의 주요 임무는 아랍 지역 공식 통계분야 국가통계업무에 종사하는 통계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식 통계 작성 방법론, 개념 및 정의 등에 관한 이론과정과 연구기반 통계기법 실무훈련 등의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매년 아랍 통계회의(Arab Statistical Conference)를 주관하고 있다.

4.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제기구들에 의해 개최되는 학술회의, 통계훈련 프로그램, 양자간 기술협력 등과 같은 국가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통계

훈련센터로서 국가통계역량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SIAP(아세아 태평양 통계연구소)와 더불어 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은 이 지역 내에서 통계 활동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기타 국제기구로는 공식적인 통계를 위한 워크숍(workshops)을 개최해 오고 있는 아세안(ASEAN) 사무국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해당한다. 또한 지역 내 회원 국가들 사이에도 양자간 교환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고 있다.

가. 아시아-태평양 경제위원회, ESCAP(Statistics Division)

1) 기술 협력을 통해 회원국들의 통계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위원회)의 통계분야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축에 해당한다. UNESCAP 사무국의 전략적 골자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승인해주고 있는 회원국들과 준회원국들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저개발 국가의 기술협력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사항들에 대하여 조언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ESCAP 기술협력 전략, 유엔통계위원회(UNSC)의 의사결정 및 권고사항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 구상안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⁵⁾ 이런 맥락에서 현재 MDGs(새천년 목표) 감시용 통계, 장애 통계, 비공식 분야의 비공식 고용 통계 및 원시자료(micro-data) 관리와 같은 4가지 쟁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ESCAP 통계과는 산하기관인 통계연수소(UNSIAP)의 표준화된 개발 프로그램, 타깃형 연수프로그램, 자문서비스와 지식관리 등을 통하여 역내 회원국 및 협력 파트너로부터 지지를 통합할 수 있는 더욱더 통합된 접근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국제기구 및 지역 기구 및 하부지역 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모든 종류의 통계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 UNESCAP이 주관하는 통계기관장 모임은 회원국 고위 관료가 참가하며, 국가 통계제도 개선 및 통계 현안 등에 관하여 토론한다. ESCAP이 주관하는 동아시아 지역 고위급 통계 관료들의 국제회의 및 통계 포럼 등이 매년 또는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표 4-4〉 ESCAP이 주관 동아시아 고위급 통계 관료 회의

공식 회의	주관기관	회수
ESCAP 회원국 통계기관장모임	ESCAP	2년 1회
아시아/태평양 통계 포럼	ESCAP	2년 1회
관리자 경영 세미나	SIAP	년 1회

5) <http://www.unescap.org/stat/overview-statdev.asp>



3) 아시아-태평양 통계연수소(UNSIAP)는 아시아 태평양 저개발 국가의 통계훈련을 위하여 1970년 설립된 이후 1995년 UNESCAP의 공식 보조 기구로 확대되었다. UNSIAP 설립 취지는 경제사회 개발계획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기적절한 고품질의 통계를 생성하고 개발도상국들의 통계적 훈련 및 기타 관련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저개발 국가들의 통계 수집, 분석 및 배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훈련과정 및 워크숍 과정으로는 소지역 추정법, 아시아 태평양 역내 통계 훈련 협력관계 구축 관련 워크숍, 공식 통계의 통계 품질관리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지역 강좌/워크숍, 공식 통계의 (경제 통계) 분석, 해석 및 배포에 관한 단체훈련,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공식경제통계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지역중심 훈련 등이 있다.

나. 동아시아 통계기관장 회의(MHNSOEAC)

1985년부터 2~3년 주기로 일본 정부에서 당시 아세안 회원국(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들과 경제·사회·문화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통계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세안 지역 통계기관장을 일본에 초청하여 통계회의를 실시했다. 이후 1992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였고, 아세안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참가국이 늘어났다. 특히 2000년 9차 회의에는 통계학자들과 공동으로 ASF(Asian Statistical Forum)를 개최하였으나 정례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표 4-5〉 동아시아 통계기관장 회의 개요

주관	일본 통계청, 외무부
제목	The Meeting of the Heads of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of East Asian Countries
참가 범위	참가자: 아세안 회원국(10개국)+한국, 중국, 몽골의 통계청장 옵저버: 호주, 뉴질랜드, 유엔, IMF 등
비고	2년마다 개최되고 일본통계청이 주도하는 회의체

다. 아시아 개발은행(ADB)

ADB(아시아 개발은행)는 ADB의 지역 담당국에 의해 전담되는 회원국들을 위한 결속력과 전략적 우선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전략(RCS)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미 정해진 우선사항들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협력무상원조 및 프로젝트 용자를 통해 개발도상 회원국들이 통계협력회의 및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통계를 개선하는 작업은 ADB 측에게 있어서 중요한 쟁점사항 중의 하나였다. ADB는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거시 경제 및 사회 자료를 저장하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중

양통계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SDBS)을 구축하여 왔다. SDBS(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의 다음 단계로는 그 사용자들이 아시아 태평양 개발 도상 국가들의 핵심 지표들이 명시된 통계표를 갱신하는 작업을 가능케 하는 보고서 모듈(reports module)을 추가할 예정이다.

라. 아세안(ASEAN)

아세안(Statistics Unit)은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자 회원국들의 통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협력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분야(해외직접투자(FDI), 비-관측 경제(NOE) 등)에서 회원국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증진시키고 전체적으로 국가통계청 내부의 기존 자료 생성 및 분석 시스템(수집, 생성, 분석 및 보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국 통계청들은(NSOs) 자체역량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통계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 통계시스템 하에서 기타 기관들(세관, 중앙은행)과의 활동 조정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농업 통계 정보 수집 분석과 정보 확산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행 중에 있다.

아세안 사무국(통계과)은 지역 통계 쟁점 사항들을 처리하면서 회원국 통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세안 통계기관장 회의(AHSOM)를 개최한다. AHSOM 회의는 아세안 지역 통계 현안에 대한 의결기구로서 아세안의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한·중·일 및 호주, 뉴질랜드 등)와 국제기구 주요 관계자들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11월에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과 공동으로 국가통계제도 발전 한-아세안 통계개발포럼을 실시한 바 있어 2009년 제9차 아세안 통계기관장 회의에 옵서버로 공식 초청되었다.

〈표 4-6〉 최근 AHSOM (아세안 통계기관장 회의)

회의	일자	개최지
제 9차 아세안 통계청장 회의	2009.1.15~16	싱가포르(Singapore)
제 8차 아세안 통계청장 회의	2007.12.17-18	프놈펜(Phnom Penh)
제 7차 아세안 통계청장 회의	2006.11.21-22	가동(Gadong)
제 6차 아세안 통계청장 회의	2005.8.16-17	마닐라 (Manila)
제 5차 아세안 통계청장 회의	2004.1.12-13	루앙프라방(Luang Phrabang)

마. 태평양공동체 사무국,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SDP)

태평양공동체 사무국의 통계 및 인구 프로그램(SDP)은 역내 국가통계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회원국의 사회 경제 기획부서들의 정책입안자 및 분석가들이 원하는 통계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및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 섬 국가와 자치령(PICTs)들이 최적의 자료수집 시스템 구축을 돕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5. 미주

가.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 UNECLAC(Statistics Division)

ECLAC(통계과)의 주요 협력 분야는 중남미 지역 통계협력공조 이니셔티브, 2011 국제 비교 프로그램, 미주 통계회의의 회원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역통계자료 구축 프로젝트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중남미 지역 통계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 제도적 정비 및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노력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남미 통계협력 “code of good practices”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새천년 목표(MDGs) 관련 지표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분야별 작업반 활동(working group: 성인지 통계, ICT 통계, 국민계정 통계, 환경통계, 빈곤측정통계, 인구센서스, 이동 및 송금동향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통계제도를 개선시키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도 2007년 7월 UNECLAC(유엔중남미 경제위원회)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제·문화 협력사업, 인적교류 및 회의 참여를 통해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적극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ECLAC은 위원회 산하에 역내 국제기구로서 미주통계회의(Statistical Conference of the Americas)를 설치하고 2년마다 통계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미주통계회의는 중남미 지역 내 주요통계 현안을 토의하고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역내 최고 통계기구이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유엔중남미 경제위원회(UNECLAC) 회원국 간의 통계시스템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통계시스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역내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미주통계회의 집행위원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표 4-7〉 최근 미주통계회의 실시 현황

일시	회의 제목	장소
10-13 August 2009	Fifth meeting of the Statistical Conference of the Americas	Bogota
25-27 July 2007	Fourth meeting of the Statistical Conference of the Americas	Santiago
1-3 June, 2005	Third meeting of the Statistical Conference of the Americas	Santiago

나. 안데스 공동체, The Andean Community(ANDESTAD)

안데스 공동체가 운영 중인 통계기구인 ANDESTAD의 역할은 안데스 공동체의 통합

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통계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회원국의 사회 경제 기획 부서들의 정책 입안자 및 분석가들이 원하는 통계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각종 통계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통계청이 핵심 지원 대상 기구이다. 이를 위해 PARIS21은 안데스 지역에서 NSDS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 4개 국가의 통계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다. 기타 통계 협력 활동

1) 캐리비언 개발은행(CDB)의 Statistical Services 기구는 회원국의 특별 관심사인 경제정책 및 정책 관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통계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캐리비언 공동체 및 공동 시장(CARICOM)은 회원국의 국민 계정, 무역통계, 사회/성별 통계, 노동 통계, 보건 통계 등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역 통계 프로그램 (Regional Statistics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라운드 센서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2)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회원국의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3) 동 캐리비언 국가조직(OECS) 사무국에서는 국가통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회원국의 통계자료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회원국의 정책 입안자 및 분석가들이 원하는 통계자료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중앙아메리카 통합시스템(SICA) 사무국이 진행하는 주요 통계협력 활동은 무역통계시스템(SIECA), 식량보안 및 영양 지역지표통합시스템(SIRSAN) 및 물가정보시스템 3 종류의 지역통계시스템을 지역 수준에서 이행하는 것이다.

제5절 OECD 주요국의 국제 통계 협력 활동

OECD 개발지원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발표한 국가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제공 실태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단지 스웨덴을 비롯한 4개 국가만 UN의 기준인 총국민소득(GNI)의 0.7% 이상을 저개발국에 ODA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개발지원위원회 회원국의 평균 ODA 수준은 GNI의 0.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OECD 주요국의 통계분야 ODA 협력 방식이 자국 내의 국제 협력단과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도 KOICA와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저개발 국가 통계인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통계 분야의 ODA 협력은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이 주관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OECD 주요국의 통계 분야 국제 협력활동은 주로 저개발 국가의 빈곤 감축과 새천년 목표(MGGs), 국가개발전략 및 결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국가 수준(national level) 및 국제 수준(international level)에서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1. 호주(ABS, International Relation Division)

호주 통계청(ABS)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저개발 국가의 통계전문가에 대한 훈련 지원을 위하여 SIAP와 IMF지역 훈련 센터를 통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통계기관의 특성에 따라 타깃/맞춤형(Customized to country needs)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태평양 지역, 인도네시아, 바누아투를 대상으로 3개의 장기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지역 기술지원은 AusAID 기금에 의한 Pacific Governance Support Programmeme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주로 이 지역에서의 survey control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재건 개발을 위한 양국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바누아투는 AusAID 기금으로 바누아투의 통계제도 정비를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인디아 및 파푸아 뉴기니 등에 통계기술자문 등의 협력을 하고 있다.

2. 캐나다(Statistics Canada,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

빈곤 국가와의 통계수준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캐나다 국제개발협력기구(CIDA)와 통계청이 저개발국의 SCB(Statistical Capacity Building)를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8~2009년에는 PARIS21 이니셔티브인 저개발 협력 파트너 국가의 국가통계개발전략(NSDS)을 지원하기 위하여 2년간 150만 달러를 원조하였다. 또한 캐나다 국제개발협력기구(CIDA)는 통계청과 협력하여 2006~2009년 3년간 월드 뱅크의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을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에 6백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Public Sector Capacity Programme 및 International Comparisons Project를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중국국가통계국과 공동으로 통계정보관리에 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UNESCO 통계 부서(Institute of Statistics)의 장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5년간 전반적인 지원하고 있다.

3. 덴마크(Statistics Demark, International Consulting Unit)

덴마크 통계청 Statistics Denmark(International Consulting Unit)의 국제기술지원 협력프

로그래는 주로 아프리카, 발칸, 발틱 및 중동유럽 국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3년 시작된 모잠비크와의 기술 지원 협력으로 모잠비크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2008~2011년 3년간 모잠비크 통계 발전을 위하여 3천5백만 DKK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 아프리카 지역 국가(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및 가나)의 특별 통계 활동을 지원을 위하여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4. 핀란드(Statistics Finland, the Unit for International Affairs)

핀란드 통계청 Statistics Finland(the Unit for International Affairs)가 참여하는 통계 기술 제공 협력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지원국가	주요 통계협력 분야
불가리아	행정자료, 비밀보호, 응답부담감소 분야
크로아티아	비즈니스통계, 가구조사, 경제통계, 조사표설계
이집트	자료보급, 조사표 설계, 통계적 인식, 국민계정
라트비아	비밀보호, 자료보호
러시아	경제통계, 국민계정 사업체조사, 자료수집, 자료보급
터키	사업체조사
우크라이나	환경 및 에너지 통계

5. 노르웨이(Statistics Norway, Divis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노르웨이 통계청 Statistics Norway(Divis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은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가의 공식 통계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개인은 물론 조직 차원에서 인적 자원 강화와 관리능력까지 포함한다. 개별국가에 대한 지원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Albania, Angola, Eritrea, Malawi, Moldova, Mozambique, Uganda, Sudan, Belize, Botswana, Kenya and South Africa) 그리고 Pakistan, Palestine 등과 장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키르키즈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개발 지원을 시작하였다.

6. 스웨덴(Statistics Sweden, International Consulting Office)

스웨덴 통계청 Statistics Sweden(International Consulting Office)의 통계분야 기술 지원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인 SIDA(Swed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와 공조하여 이루어진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의 저개발국의 통계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들 저개발 국가와의 장기 협력 관계를 통하여 수행되며 기술, 관리, 재정적인 분야를 총 망라하여 협력관계 기관과의 통합 조정(twinning arrangement)을 통하여 스웨덴의 경험들이 전수된다. 스웨덴 통계청의 국제 협력은 아프리카(Cape Verde, Mozambique, South Africa), 남아메리카(Bolivia, El Salvador, Guatemala), 아시아(Cambodia, Central Asia, China, Laos, Philippines, Tajikistan, Vietnam) 및 동유럽(Albaniae, Armenia, Azerbaijan, Balkan Regional projects,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Kosovo, Macedonia, Serbia, Montenegro) 지역의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25년간 진행되고 있다.

7. 프랑스(INSEE,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Unit)

1) 양자간 및 다자간 통계협력관계가 중동유럽 지역, 중동지역,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저개발국의 국가통계기관과 체결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그리고 워크숍 주최 등의 방법으로 대상 지역에 대한 기술 및 방법론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이 밖에 통계교육센터(INSEE's Training Centre)에 외국 통계담당자 및 경제학자를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 제공하고 워크숍 및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다.

2) 프랑스 Libourne에 위치하고 있는 INSEE 통계교육센터(INSEE's Training Centre)는 외국 통계담당자 및 경제학자를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 제공하고 워크숍 및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Abidjan, Dakar 및 Yaound을 설립된 통계교육 관련 기관들의 근본 원칙을 적용하여 INSEE가 아프리카에 설립한 아프리카 통계 교육원(African Statistical Training Institutes)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8. 독일(Federal Statistical Office, Division of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1)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은 동유럽, 터키,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40여 개 통계기관과 공식 통계분야 발전을 위한 1500개 이상의 통계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이 중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금을 활용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의 대규모 통합프로젝트와 터키의 통계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독일 연방 통계청은 타지키스탄에서 수행되는 주요 월드뱅크 기금 통계프로젝트의 컨소시엄 리더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2) 독일의 국제 협력단(InWEnt)은 자체적으로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 운영 부서를 설치하여 협력파트너 기구들과 공동으로 통계기법 및 통계작성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SCB 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대부분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 통계기관 직원이며 일부 통계정보 이용자도 포함되어 있다. 1973년 통계센터가 설치된 이래 전 세계 각국에서 3,000명 이상의 통계담당자가 응용통계 분야에서 연수과정을 마쳤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현재 각국에서 고위 통계 관료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훈련 과정이 경제, 환경, 사회통계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또한 선진국 협력파트너 기관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근거기반정책개발(evidence based policy development)을 위한 적절한 통계정보 이용 등의 특별연수과정에 강사로 기여하고 있다.

9. 네덜란드(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nternational Relation)

네덜란드는 영국과 함께 최근 국가 수준에서 통계를 위한 마라케시 통계발전 실천계획(MAPS)의 대규모 지원을 위하여 140만 달러를 중앙(central) 기금으로 제공하였다. 과거 네덜란드 통계청은 PARIS21과 공동으로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월드뱅크 신탁 기금 및 몇몇 통계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지식 공유 자문 및 연수 과정 등을 통하여 기술 지원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통계청도 터키의 통계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터키의 경제 통계와 교통 통계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현재 2008~2010년 러시아, 루마니아 및 크로아티아의 경제 통계 및 교통 통계 분야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0. 뉴질랜드(Statistics New Zeal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ogramme)

뉴질랜드는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폭넓은 경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 통계청은 이 지역의 통계 개발을 위한 현안에 특별한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태평양 공동체(Pacific Community) 사무국, IMF 태평양 재정 기술지원 센터 그리고 호주 통계청(ABS)과 같은 지역 내 핵심기구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1. 스페인(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International Relations Directorate)

스페인 통계청(INE)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



인 유대 관계가 깊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통계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협력 기금 조성은 통계청 예산과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AECI) 기금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 공식 통계 분야 공무원들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 및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라틴 지역 국가통계제도 개선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과 그 지역 현대화를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 아르헨티나, 안데스 공동체 등과 MOU 등을 통하여 기술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양자협력관계도 활성화 되어 있다. 이 밖에 유럽위원회 기금을 활용하는 폴란드, 헝가리 및 중동지역 국가들의 통계자료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통계청이 추진하는 모잠비크 통계시스템개선 프로그램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다.

12. 터키(Turkish Statistical Institute)

터키 통계청(TurkStat)은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유대로 인하여 주로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들과 통계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협력 기금은 주로 터키 국제개발협력기구(TIKA)에 의해 제공된다.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 국가 통계담당자를 위한 훈련 워크숍,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역 국가통계제도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현대화를 위하여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회의체(OIC)가 운영중인 이슬람 통계, 경제 사회 연구 및 교육센터(SESRI)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및 팔레스타인과 MOU를 통한 기술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양자협력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13. 영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1) 영국 통계청(ONS)은 2007부터 아프리카 영어사용국가들의 ICP(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영국 통계청과 타 정부기관 통계담당부서 모두 국제개발부(DFID)와 공동 협력하여 국제 원조 현안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국제통계 분야의 중점 협력 분야로는 MDGs 프로그램과 국가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지원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2) 또한 영연방국가 고위급통계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 회의는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 선언을 시작으로 영연방의 목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통계 분야 발전을 위한 것이다. 특히 영연방 국가의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만드는 것 뿐 만 아니라 영연방 국가의 민주적인 통계제도 및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역할이 영연방

국가 고위급 통계회의의 오랜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영연방국가 고위급 통계회의는 1990년대 초기부터 위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였다. 영연방국가의 고위급 통계회의는 첫째, 적합한 통계 지표를 공표함으로써 발전 목표와 대조하여 발달 정도를 측정하고 둘째, 기술·운영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민주적 통계협회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연방 목표를 이루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 영연방국가 고위급 통계회의는 UN 시티그룹이 설립한 것과 유사한 방식의 자발적인 가상의 영연방 통계기관장회의 사무국이 설립되기를 원했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무국의 임무는 영연방국가 통계기관장 모임의 비전 성과를 도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모임의 발전 추이를 보고하는 것이다.

14. 미국(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Programmemes Center)

미국 센서스 국 국제프로그램 센터(IPC)는 전 세계 100여 개 이상 국가에서 각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활동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IPC의 인력 자원은 영어 이외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IPC의 국제 협력 지원 분야는 센서스, 통계조사,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토픽에 관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토픽은 센서스 수행 관련 전 과정인 설계, 인력조직, 조사표, 샘플디자인, 자료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인구분석, 자료의 보급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PC는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국가통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Customized to country needs) 통계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47년 이후 전 세계로부터 6,000여 명 이상의 통계 담당공무원이 워싱턴D.C에서 장기 프로그램 연수 과정을 수료하였고, 5,000명 이상이 워싱턴과 해외에서 단기과정의 워크숍 과정에 참가하였다. 워크숍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는 아랍어로 실시되어 각국의 언어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은 저개발국의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사정을 반영한 특별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수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재정은 미국 원조기구(UNAID), 유엔, 특별 기관, 민간 기금 등 각지에서 지원된 자금을 의존하고 있다. IPC는 또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SCA(Statistical Capacity Assessment), 빈곤분석, 국가인구프로젝션 적용 방법, SCB(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등에 관한 중·단기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센서스 데이터 분석, 자료처리, 센서스 기획 등에 관한 다양한 통계 패키지를 개발하여 협력 대상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15. 미국(USBLS, Division of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지난 50년간, 미국 노동통계국(BLS)는 전 세계 국가통계기관 및 관련 기구에 자료수집, 자료처리, 분석 그리고 노동통계 활용 등에 관한 연수 및 기술 지원을 하였다. BLS 국제기술협력과(Division of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는 해외 통계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통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BLS의 통계전문가 파견 및 BLS 단기방문연수 등 각국의 국제적인 지원 요청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세미나,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및 자문 등은 유료이지만 단기 BLS 방문 연수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16. 일본(Statistics Bureau of Japan, International Relation)

일본은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와 통계국이 공동 협력하여 주로 동아시아와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 기술 지원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의 통계 협력은 다자간 협력과 ODA방식의 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자간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1980년 이래로 2년 간격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내의 국가통계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의 목표는 센서스 및 기타 통계조사에 관한 의견 및 경험을 교환하는데 있다. 동아시아 통계기관장 회의에서는 통계 분류의 조화에 추가하여 제조업 통계의 비교 가능성을 촉진하고 ASEAN+3(아세안+3개국) 회의 구상안 및 그 우선 통합 분야의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일본 통계국은 OECD, 유엔, IMF, ESCAP ILO, ISI 등 주요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 통계청에 고위급 통계공무원을 파견하여 주요 국제 통계 현안, 국제회의 및 ICP(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me)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일본 통계국이 검토해야 할 현안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통계역량강화(Statistical Capacity Building)를 위한 기술 지원 및 교부금 부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아세안(ASEAN) 공통산업분류(ACIC)⁶⁾에 근거하여 4자리 수 국제 표준산업분류(ISIC)로 제조업 통계의 비교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조업 통계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국제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산업통계 전문가회의(EAMS)⁷⁾가 발족되었다. EAMS의 목적은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신뢰성 있고 국제 비교 가능한 동아시아 제조업 산업 분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산업 체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0년경에는 ISIC(Rev.4, 4단위) 및 ACIC의 기준에 맞춘

6) AHSOM(아세안 통계기관장 회의) 활동 및 그 회의의 ACIC(아세안 공통산업분류) 완성에 관한 보고서, 2006년
7) 동아시아 산업통계 전문가회의의 EAMS(East Asia Expert Meeting on Industrial Statistics)

‘동아시아 공동 제조업 산업분류(EAMIC)를 완료 예정이다.

〈표 4-8〉 최근 동아시아 산업통계 전문가회의 개최 현황

일시	회의제목	장소
2009. 6.9~11	제4차 EAMS 및 제8차 AMEICC 개최	필리핀
2008. 5.28~30	제3차 EAMS 및 제7차 AMEICC 개최	중국
2007. 7.3~5,	제2차 EAMS 및 제6차 AMEICC 개최	라오스
2007. 1.22~23	제1차 EAMS 및 제5차 AMEICC	일본

주) 매년 EAMS회의와 AMEICC(아세안-일본 경제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 동시에 개최

일본 통계청은 1986년 이래로, 통계 연구 & 훈련 연구소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 소속의 몇몇 통계 공무원들을 매년 초대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통계 전문가들을 위해 마련된 “통계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의 새로운 제도가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 추진될 예정이다. 일본의 ODA 방식의 통계협력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계지원 원조액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실행했던 ODA에 의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주요 통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공업생산지수	공업생산지수	인구센서스	사업체통계조사·집계	교육훈련

또한 일본 통계국은 JICA 국제 협력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남미와 아시아 지역 저개발 국가(Mexico, Indonesia, Sri Lanka, Philippines, Argentina, Myanmar, and Cambodia 등)의 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거나 연수생을 초청하여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제6절 우리나라의 국제 통계 협력 현황

1. 양자간 통계 협력 추진 현황

가. 개요

현재 통계청은 일본(1982년부터), 중국(1993), 독일(1997), 콜롬비아(2002), 몽골(2002), 베트남(2002), 태국(2002), 필리핀(2004) 및 이란(2007)과 양자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

8) 시마무라 시로우(전 일본 통계국장)이 2006년 일본통계협회의 월간지 「통계」에 게재했던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하였음

다. 일본은 1982년 통계청이 최초로 양자간 통계 협력 관계를 맺은 국가다. 일본 통계국과 우리나라 통계청은 공식적인 양자간 협력 관계 이전부터 통계 연수단 파견 및 일본 통계 전문가 초청 통계 기법 전수 등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다. 대만(1984), 러시아(1995), 콜롬비아(2001), 필리핀(2004)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 사정에 따라 양자간 협력 관계가 중단된 경우도 있다. 특히 대만과는 1984년 한국·일본 및 대만 3국이 통계 분야의 교류 계획에 합의하고, 1991년까지 통계 인사의 상호 교류를 실시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대만과 단교(1992년)하면서 통계 교류를 중단했다. 대만과의 양자간 통계 협력 관계는 이후 상대를 중국으로 바꾸었으며, 1992년 중국과 교류 협력 관계를 맺은 이후 지금까지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계교육원과 충남통계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중국 통계교육원 및 연변통계국 등과 양자간 협력 관계를 맺은 후 매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나. 주요국(일본·중국·독일)과의 양자간 협력 관계

1) 한·일간의 통계 분야 협력은 양국이 정기 협력 관계를 맺기 전부터 비정기적으로 통계 정보 및 인적인 교류가 진행되어 왔다. 1960년~1980년간 일본에서 통계작성기법 연수(국부통계조사 등 18회 38명), 전산 기법 연수(EDPS기술교육 등 19회 91명), SIAP과정 이수(14회, 14명) 및 자료 교환(월보 4종, 연보 6종) 등이 이루어졌었다.

또한 일본측 전문가 Mr. Koyama Hirohiko가 방한하여 EDPS 정보처리기법 지도(72년 4개월, 73년 2개월) 등 기술 지원이 실시되었다. 이후 1981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3차 ISI총회에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김대영 국장과 일본 총리부 통계국의 나가야마 국장은 한·일 양국간의 상호 교류 방문 계획을 논의하여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2년 4월 한국에서 처음 한·일 통계협력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양국간 통계협력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한·일 간 통계협력회의는 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후에 통계청으로 승격)이 맺은 양자간 통계협력회의가 효시가 되었다.

2) 한·중 통계협력회의는 1990년 10월 북경에서 열린 제2차 IAOS회의 기간중 김경중 통계계획관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邵宗明 부국장과 특별회의를 가지면서 향후 양국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통계분야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이후 1992년 12월 서울에서 중국 국가통계국 국제통계 항목센터 주임 Mr. Zhu Xiangdong과 통계청의 임성곤 통계기준과장이 한·중 통계교류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 향후 양국의 통계기관장이 만나 통계 협력을 위한 정식 약정서를 교환기로 합의하고 “토의 기록(Record of Discussion)”을 작성하였다. 1993년 4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양자간 협력 관계 추진을 우리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1993년

8월 민태형 통계청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국가통계국장(張塞)과 1992년 12월에 서명한 토의 기록대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3) 한·독 통계협력회의는 1997년 8월 김병일 통계청장이 유럽 출장 기간 중 독일 비즈바덴에서 독일 통계청장(Mr. Johann Hahlen)을 만나 양국간의 통계 분야 교류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한 후 1997년 11월에 독일 통계청장이, 1997년 12월에는 한국 통계청장이 각각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5일 한국 통계청 남번 통계기획국장과 독일 통계청의 Mr. Hermann Glaab 베를린 지청장이 서울에서 제 1차 한·독 통계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의 통계 협력 방안 및 1999년, 2000년에 토의할 주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토의 기록(Record of Discussion)”에 서명하였다.

다. 저개발국들과의 양자간 협력

통계청은 몽골, 태국, 베트남, 이란 등 외국 국가통계기관과 상호 협력 약정을 맺고 정기적으로(약정에 따라 매년 1회 또는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통계 현안에 대해 양국 간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각종 통계 정보와 통계 인사 교류 등으로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통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저개발국과의 양자간 통계 협력의 목적은 우리의 통계 기법과 경험을 저개발 국가에 전수함으로써 저개발 국가 통계역량 강화 및 국제 비교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우방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국력 신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몽골, 베트남 등과의 양자간 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새로운 통계 협력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기술 지원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라. 국제기구와의 통계 분야 교류

국제 공식 통계기구인 OECD 통계위원회, UN 통계위원회, UNESCAP 통계위원회, UNECE 통계위원회에 회원국 또는 의장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통계대회(ISI)에도 회원국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OECD 통계국과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World Bank의 재정 지원(40만 유로)하에 저개발국 통계발전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유엔과 공동으로 제2차 경제센서스 국제워크숍 및 OECD 통계국과 공동으로 제3차 OECD 세계 포럼 등 2007년 이후 매년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마. 통계분야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통계 협력

호주 통계청과는 2001년 ISI 서울 대회 개최 이후 지속적이고 밀접한 통계 협력 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상호간 전문가 교류 등 왕래가 빈번하고 우리 청 직원을 호주 통계청에 장기 파견하는 파견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 청 직원 파견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 통계 원격탐사에 관한 경험과 사업체 조사 행정 자료 이용 체계에 대한 경험 공유를 위하여 호주 통계청으로부터 전문가를 초청하기도 하였다. 미국과는 주로 통계 기법 연수 및 미국의 선진 통계 기법 시찰을 위한 우리 직원의 파견과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국제회의에 미국 전문가 초청 등의 인사 교류가 활발하다. 양국은 통계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통계 분야 협력은 주로 선진 통계 기법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 교류 및 국제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통한 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호주, 일본 등 통계 분야 선진국 및 OECD, UN, EU 등 국제기구에 통계청 과장급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파견하고 있다. 국외 파견 공무원은 습득한 선진 통계 기법을 전파하고, 각종 통계 정보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통계청과 파견기관과의 업무 연락 및 협력 관계 유지에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통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저개발 국가 기술 지원 현황⁹⁾

가. UNSIAP 주관 개발도상국 통계연수과정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아·태 통계연수소(SIAP)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공식 통계 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과정(Outreach Programmeme)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최초로 SIAP와 공동으로 외국인 통계 연수 과정을 개설하기로 합의(1999.4.20)한 후 2008년까지 11차례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가구 및 사업체 조사 표본 과정, 자료 관리 및 보급 과정, 시계열 분석 과정, 장애 및 보건 통계 과정, 연구 기반 지역 과정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가구 및 사업체 조사 표본 과정(Course/Workshop on Sample Design for Household and Establishment Surveys)”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 2003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연구 기반 지역 과정은 2004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매년 계속되고 있다.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통계 연수 과정 수행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 협력단(KOICA)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의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

9) 통계청 국제 협력담당관 자료(www.kostat.go.kr)

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에 걸쳐 연간 120개(연수생수 2,000명) 내외의 국내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통계청은 KOICA와 공동으로 2005년 이후 이라크 아르빌 지방 정부와 이라크 중앙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개의 통계 기법 연수 과정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의 연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제공 설명하고, 필요시 국내 통계 작성 기관도 방문하여 통계 작성 과정 기법 등에 대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통계청의 업무를 소개하고 통계 분야의 국제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표 4-9〉 KOICA 자금활용 저개발 국가 통계훈련과정 현황¹⁰⁾

통계훈련과정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개발도상국	19명	-	12명	14명	16명
이라크지방정부	15명	14명	-	32명(2회)	-
이라크중앙정부	-	13명	16명	16명	-
합계	34명(2회)	27명(1회)	28명(2회)	62명(4회)	16명(2회)

다. 저개발 국가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기구 및 KOICA 등과 공동으로 저개발 국가 통계제도 발전을 위한 통계 기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6년에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통계DB 구축 및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계청 전문가를 파견 하였으며 중국 농업 통계조사 지도를 위하여 농업 통계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세계은행의 저개발 국가 통계발전 프로젝트 기금(STATCAP)을 활용하여 몽골 국가통계시스템 강화 사업(MONSTAT)과 인도네시아 통계역량강화 사업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3. 국제 통계자료 교환¹¹⁾

외국 정부, 국제기구 및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사회 관련 정보(data, 질의서, 간행물 등) 제공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요청 내용도 초기의 단순 공표된 소량의 자료 위주에서 점차 세밀하고 분석적인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요청 자료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변화된 관심뿐만 아니라 통계자료 해외 제공의 중요성을 새삼 엿볼 수 있다. 정

10) 국제 협력담당관 자료인용

11) 통계청 국제 협력담당관 (www.kostat.go.kr)



기 자료 제공은 UN, ILO 등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IMF를 제외)하는 형태와 국제통화 기금(IMF)에 IMF SDDS(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 특별통계공표기준)에 따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국제기구 자료제공(IMF SDDS 제외)은 『UN, ILO, WHO, OECD, ADB』 등 국제기구, 『홍콩, 말레이시아』 등 외국통계청, 『TCB(The Conference Board), ECRI(Economic Cycle Research Institute, 이상 뉴욕 소재 경기관련 연구소)』 등 연구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질의서 및 요청 양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월, 분기, 연간 등 요청 주기에 따라 작성·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6년 9월 IMF SDDS(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기준에 가입함으로써 IMF의 요구에 따라 각종 통계의 메타 자료(Metadata), 사전공표일정(Advance Release Calendar), 실제수치(National Summary Data Pages)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기획재정부, 노동부, 한국은행 등 6개 기관의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IMF SDDS에 의한 요청 양식으로 각종 통계정보들을 IMF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영문 홈페이지상의 Q&A 코너, 영문 E-mail 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부정기 자료 제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타 국제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부정기적으로 한국의 관련 통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도 부정기 자료 제공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및 지역 통계 자료 작성을 위한 마이크로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부정기로 요청되는 자료의 제공 범위는 우선적으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검색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공할 내용이 간략할 경우에는 원하는 자료를 찾아서 제공하지만, 분량이 많거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없는 타 기관 통계인 경우는 해당 통계 생산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제공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및 e-mail 주소를 제공하여 자료를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4. 국제회의 개최 현황¹²⁾

국제 통계 사회에서 우리의 통계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통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최했던 대규모 국제통계회의는 2001년 세계통계대회(ISI대회)를 비롯하여, 2009년 10월 제3차 OECD 세계포럼이 있다. 이 밖에 중 소규모의 국제회의를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4년 2회, 2006년 3회, 2007년 3회, 2008년 3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에는 7월에 유엔과 공동으로 제2차 경제센서스 국제워크숍을 실시하였고, 9월에

12) 통계청 국제 협력담당관 www.kostat.go.kr

는 통계청이 주관하여 제1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제회의의 개최는 새로운 통계 기법, 제도, 기준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최 측의 공헌도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회의의 각종 프로그램, 사교 행사를 통하여 국내외 참가자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개최지의 이미지 제고와 지명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국제회의 유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외화 유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정부 기관 및 민간 학술단체 등의 국내 유치도 증가하고 있다.

5. 국제통계센터(ISDC) 설립 추진 노력

통계청은 1999년부터 실시된 아세안 통계 포럼(Asian Statistical Forum)을 추진하기 위하여 ASF 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하자고 노력하였다. 이후 2005년 제55차 ISI 시드니 회의에서 유엔 통계국(UNSD)은 한국 통계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제통계센터(ISDC)를 유엔의 제휴 기구로서 건립하자고 제의하였다. 2005년 10월 워싱턴에서 한국통계청, 유엔 통계국 및 호주통계청이 국제통계센터의 설립과 역할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그리고 2006년 3월 통계청, 유엔 통계국 및 대전시가 협력하여 가칭 국제통계센터(ISDC)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한 달 뒤인 2006년 4월에는 중국, 몽골에서부터 국제통계센터(ISDC) 건립에 대한 지지 서한을 받았다. 2006년 5월에는 국제통계센터(ISDC) 건립 관련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일본 통계국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2007년 새로운 국가통계정책이 도입되면서 국제통계센터(ISDC) 건립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현재 사실상 국제통계센터(ISDC) 건립 프로젝트가 중단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유엔 통계국 등과 체결된 MOU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제통계 공동체에서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제7절 향후 국제 통계 협력 발전 방안

우리는 정부 수립 이후 국제 수준의 국가 통계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통계청의 조직 확대 및 통계법 정비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국제기구 및 통계 분야 선진국들과 국가통계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 및 유엔통계위원회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통계 사회에서 매우 높은 국제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09년 10월에 개최한 OECD 세계 포럼을 성공적



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통계청의 위상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처럼 한국 통계청이 갖는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저개발국 대상 통계 분야 기술 지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 통계 작성 분야의 선진화, 국제 통계자료의 공유 필요성 증대 등 대내적 요구도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과거 이루어 낸 국가 통계 발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저개발 국가에 전수하여 주고 공유하여야 한다.

1.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 강화

최근 세계 경제가 지역별로 블록화 되고 있어 국제 통계 협력도 지역별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주변국들과 국제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아세안 회원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통계 협력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경제적 관계를 넘어 문화, 제도, 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전면적인 협조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협력의 출발점으로서 통계 협력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와 달리 통계 분야는 공통적인 지향점이 있으며, 행정 내용이 비교적 동질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이질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통계 분야는 “정확한 정보의 생산”이라는 분명한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협력도 그만큼 용이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이들 지역간의 통계 협력의 중요성이 있으며, 한국 통계청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¹³⁾

2. 아세안(ASEAN)과의 국제 협력 강화

최근 ASEAN 회원국과의 급속한 교역 증가로 두 지역간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의 일환으로 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ASEAN+Korea 정상 회의에 통계 협력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 및 시사점 도출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최근에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아세안 공적 개발 원조(ODA)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기금 중 1억 달러를 아세안 국가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우리

13) 2007년 한 아세안 통계개발포럼(통계청장 개회사)

나라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통계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면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과의 통계 협력 추진 방향으로 ASEAN 사무국과 양자간 통계 협력 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2008년에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아세안 통계 개발 포럼 등과 같은 고위급 통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ASEAN 회원국에 대한 technical cooperation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개발 국가에 대한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2015년까지 세계 빈곤 퇴치를 목표로 2000년에 제정된 새천년 목표(MDGs)의 이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6일 『2009년 MDGs 이행성과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개도국 내 사회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국의 사회보장, 무역 증진과 식량 위기 타파를 위한 기금 마련 등 다양한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원조 확대 계획이 GNI에 대한 ODA 비율 기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규모 축소로 원조액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저개발국 빈곤 퇴치와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빈곤 퇴치,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의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계청도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 협력을 통한 저개발국 원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저개발 국가와 수행 중인 양자간 협력 관계도 기술 지원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저개발 국가의 공식 통계 담당자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워크숍 세미나 등에 초청하는 것보다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방식에 의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저개발 국가가 스스로 국가 통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가 권장하는 ODA 지표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007년에 발표한 OECD 국가의 ODA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GNI대비 0.1%로 OECD 국가 전체 평균 0.5%, 유엔 권고수준 0.7%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적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우리보다 많은 수준의 기금을 저개발 국가의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s)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를 선정하여 맞춤형(Customized to country needs) 통계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통계국은 2009년 UNSD(유엔 통계국)와 협력하여 저개발국 통계역량개발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800,000달러씩 유엔에 신탁 기금을 제공기로 합의 했다. 또한 호주 통계청(ABS)과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호주 국제 협력기구(AusAID's) 기금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국가통계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MOU 체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4. 통계교육원/통계개발원을 활용한 국제 통계 협력

유엔 통계국의 통계 활동 조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 통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통계 교육기관(Regional Statistical Training Centers)이 단지 16개 정도에 불과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식 통계 훈련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도 약 5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통계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도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국제 통계 훈련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SIAP, 아랍통계교육 및 연구소(Arab Institute for Training & Research in Statistics) 등과 같은 지역통계 교육기관에서는 유사한 사회 문화를 가지고 비슷한 통계제도를 운영하는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수월하고 언어 등 의사소통의 문제점도 적어서 효율적인 훈련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개발 국가 참가자들은 재정적인 부담과 제한적인 참가자 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training과 같은 새로운 훈련 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e-training 경험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을 활용한 국제 수준의 새로운 e-training 통계 교육 틀을 개발하여 해외 연수 기회가 적은 저개발국 통계 담당자들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그 희소성이 있는 공식 통계 전문 연구 기관인 통계개발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 수준의 통계 전문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국제 수준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회의 개최나 해외 전문가 초청 강연 활동 이외에도 해외 연구 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인적 교류 등이 활발히 수행되어야 한다.

5.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통계 분야 육성

2010년 e-census 확대 실시, 가구 부문 통계조사의 인터넷 조사 적용 확대를 위한 인터넷 조사 방법론 연구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한 인터넷 조사 국제회의 및 비공식 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비공식 전문가 회의인 시티 그룹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주요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 통계와 삶의 질 지표 등에 관한 전략적 육성을 통하여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글로벌 국제 통계기구와 협력 활동 강화

국제 통계기구와의 협력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유엔 통계국이나 OECD 통계국 등과 같은 글로벌 국제 통계기구와 공동으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특정 통계 분야 국제 이슈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하는 한편 저개발 국가 통계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 방법으로서 새로운 통계 기법, 제도, 기준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의 통계 우수성을 국제 통계 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선진 통계 기법을 저개발 국가의 통계 발전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통계 강국으로서 이미지 홍보 및 우리나라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7. 기존 국제회의 및 양자간 통계 협력 운영 체계 개선 및 내실화

통계 분야에서 UN과 OECD 가입 등 국제적 지위 상승과 국내 통계 작성 분야의 선진화, 국제 통계 자료의 공유 필요성 증대 등에 의해 국제회의의 개최 분야 업무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무 소관 부서에 따라 국제회의를 달리 개최함으로써, 국제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 국제 협력 담당관실에서는 2009년1월 국제회의를 일원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¹⁴⁾.

〈표 4-10〉 통계청의 최근 국제회의 개최 현황

(’09. 10월 현재)

년도	2006	2007	2008	2009
국제회의	3	3	3	3
	국제과 3건	국제과 2건 품관과 1건	개발원 3건	개발원 2건 세계포럼준비단 1건

14) 국제 협력 향후업무계획 (국제 협력담당관실, 2009.10)

한편, 그간 추진해 온 양자 협력 회의가 통계청 업무에 한정되어 있고 실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양자 회의 운영 체계 재정립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 국제 협력 담당관실에서 '09.1월 양자 협력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향후 양자간 통계 협력은 대상 국가별로 구분하여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양자 협력 협정은 지양하고 대신 필요시 외국 기관 방문·협의 추진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와는 주요 통계 현안에 대하여 양국간 공동 해결방안 모색, 최신 통계 기법 습득·전수, 각종 통계 정보와 통계 인사 교류로 우호협력 관계 유지해 나가고 태국, 베트남, 이란, 몽골 등 저개발 국가와는 현행 공식적인 양자협력회의 추진 방식은 축소 또는 중단하고 대신 대상 국가의 통계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등 ODA 프로그램 개발 및 특정 통계 분야 발굴 지원 방식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개발 지원 협력을 위한 분야도 확대하여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생산하는 국민계정과 보건통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⁵⁾

〈표 4-11〉 통계청의 최근 양자협력회의 실적

(‘09. 10월 현재)

구분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양자협력 회의건수	9	11	11	11	6

8. 글로벌 통계 협력 프로젝트 참여 확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월드뱅크, OECD, UNSD, PARIS21 등이 수행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현재 독일,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저개발국 통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문화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된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의 통계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아시아 지역 저개발 국가의 통계 기준, 통계 표준 분류, 통계 목적 행정 자료 이용, 국민 계정, 인적 자원 개발 및 훈련, 서비스 통계, R&D 통계, 인구 이동, 법인 회사 자료 수집, 물가 통계 및 에너지 통계 분야의 발전을 위한 신탁 기금을 매년 800,000달러씩 유엔에 제공키로 하는 등 국제 통계 사회에서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15) 양자회의 개선심사 ('09.1월 간부회의. 국제 협력담당관-64호)

참고 문헌

- 2009 Global Directory of Partners in Statistics(Paris21 & OECD)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1999), 통계 분야 연구개발(R&D): 학계 및 공적 통계 협력, OPOCE
 (유럽 공동체 공식 간행물 사무소), 룩셈부르크
 ADB(아시아 개발은행), 통계역량구축 프로그램, 2006년
 KNSO(한국 통계청), 아시아/태평양 통계인 포럼(APEX2), 2006년
 안 정 임 , 국제통계 공동체의 활동, 2007년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통계역량 구축에 관한 ADB(아시아 개발은행)/PARIS(파리)21 사무국 공동
 고위층 포럼의 싱가포르 국가 보고서, 2002년
 릴리 오우 양(Lily Ou Yang), 경제 지표의 질 향상 측면의 지역 협력, 2003년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통계 위원회, 2002년
 통계학에 관한 제 9차 이슬람 국가 회의, 2007년
 데니스 트레윈(Dennis Trewin), 국가통계시스템 비교 분석, 2001년
 이 재 형, 한국 국가통계시스템 개혁, 2007년
 AHSOM 7(7차 아세안 통계기관장 회의), 활동 및 그 회의의 ACIC(아세안 공통산업분류)완성,
 2006년
 AHSOM(아세안 통계기관장 회의) 활동 및 그 회의의 ACIC(아세안 공통산업분류) 완성에 관한 보
 고서, 2006년
 안 길 효, 국가 회계 분야에서의 한-중 통계 협력, 2007년
 ADB(아시아 개발은행), 지역적 협력 및 통합, 2007년
 아세안(ASEAN), AHSOM(아세안 통계기관장 회의)의 통계 분야 협력에 관한 아세안(ASEAN)의
 기본 틀, 2001년
 KNSO(한국 통계청)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아세안을 위한 세계포럼 지역 사전회의, 2007년
 다케히로 후쿠이(Takehiro Fukui), 일본의 통계 분야 기술 협력, 2003년
 피에트로 게나리(Pietro Gennari), 2006 아시아-태평양 역내 지역적(국가 내) 불균형의 국제적 비교
 에 관하여,
 KNSO(한국 통계청), 국제 통계개발센터(ISDC) 소개, 2006년



<부 록>

AFD	African Development Fund, Asian Development Fund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ADB	Asian Development Bank
ADP	Accelerated Data Program
BMC	Borrowing Member Country
CAE	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CAPE	Country Assistance Program Evaluation
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CR	CAS Completion Report
CFAA	Country Financial Accountability Assessment
COMPAS	Common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CPAR	Country Procurement Assessment Report
CPE	Country Program Evaluation
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SP	Country Strategy Paper
DMC	Developing Member Country
DPL	Development Policy Loan
DGF	Development Grant Facility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vD	EBRD's Evaluation Department
FSO	Fund for Special Operations
GDDS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
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ry
HMN	Health Metrics Network
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CR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ICP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EG	WB's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F	Intermediate Financing Facility
IHSN	International Household Survey Network
IsDB	Islamic Development Bank
MAPS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fDR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SDS	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D/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D	AsDB's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OEO	IADB's 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
PEFA	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QAG	WB's Quality Assurance Group
Q@E	Quality-at-Entry
QEA	Quality-at-Entry Assessments
RMC	Regional Member Country
SWAps	Sector-wide approaches
SCB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TA	Technical Assistance
WB	World Bank
WPPC	World Programme of Population Censuses

